

게임 선포→게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3일 오후 10시25분尹선포, 한 시간 뒤 게임사 설치·포고령 발표 국회, 이튿날 오전 1시 해제 요구안 의결...게임군 한시간만에 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게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게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게임 선포 한 시간 만에 게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게임사령부가 설치됐고, 게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게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게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 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터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게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들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게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게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사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게임군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답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게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 정족수를 넘는 100명으로 늘었다.

게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



국회 본청 진입한 게임군 비상게임이 선포된 4일 새벽 특전사 군 병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자, 보좌진 등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이날 게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00명 전원 찬성으로 게임 해제 요구안이 게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게임군은 게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1시간 만에 철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게임을 공식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국회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비상게임 선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임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혼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

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게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게임을 통해 망국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

게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게임사의 통제

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게임법에 의해 처단한다.

尹대통령 게임 해제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게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오후 10시23분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게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게임을 해제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

령의 게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게임을 선포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게임 해제 요구가 있어 게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게임을 해제할 것입니

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게임법 제 9조(게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게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게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게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중단, 예산 낭만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3일 비상게임 선포 시간대별 상황

21:30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이 돌기 시작

21:50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유했는데, 대통령실 내 브리핑을 앞에 다수 기자들이 집결했지만 문이 잠겨 입장이 불가능, 대통령실 22시 넘어서도 '불통' 상태

22:23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작 (담화문 낭독 약 6분간)

22:28 윤 대통령, 야당 감액예산 강행 연쇄 탄핵에 "비상게임 선포"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임을 선포할 수 있다"

22:42 민주, 비상게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23:00 담화문 전문 언론배포 / 23:09 사진 언론배포

23:04 국회 출입문 폐쇄

23:25 게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23:27 게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로 발표

12월 4일

00:07 게임군 국회 경내 진입

00:22 게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00:45 게임군 국회 본청 진입

00:49 국회 본회의 개의

01:01 "비상게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야당의원 172명, 국민의힘 찬성 18명) 국회의장실 "게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게임선포 무효"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02:01 원위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국방부에 게임해제 요구 통지 보내"

04:22 합동참모본부, 비상게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04:27 윤 대통령, 생중계 담화 통해 비상게임 선포 해제. 군 설치 게임사령부 해제

04:30 정부, 국무회의 열여 게임해제안 의결 발표

연합뉴스

▶ 1면 '또 군한테 밟히겠다'는 민주당의 '서 거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10분 광주 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의 비상게임 선포는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비상게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군이 국회에 진입했던 것을 두고 민변은 "국회의 게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게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게 대한 엄중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대·조대 교수·학생들도 '충격' 1980년 5·18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광주지역 대학가도 충격에 휩싸였다. 전남대학교 교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며 "대통령의 비상게임 발언에 아연실색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비상게임 해제를 가결해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고 말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도 비상게임 선포와 관련된 SNS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지금의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해 혹시라도 학우들에게 미칠 악영향이나 파장이 발견된다면 즉시 알리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회) 조선대 지회도 "전날 밤 윤석열의 느닷없는 비상게임 선포는 100만여 국민이 분노하는 즉각적인 국민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묻혀 한편의 저급한 코미디로 끝났다"고 평가했다.